

제128호(2016. 7. 4.)

#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1. 브렉시트의 對세계경제 전망 .....	1
2. 브렉시트의 우리나라 농업부문 파급영향 .....	7
3. 시사점 및 대응 방향 .....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송미령	선임연구위원	061-820-2011	mrsong@krei.re.kr
내용 문의	한석호	연구위원	061-820-2279	shohan@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브렉시트(Brexit)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정치적 사건**
  - 브렉시트는 영국의 이민자 급증에 따른 부담, EU 내 경제규모 대비 영국의 낮은 영향력, EU 분담금의 부담, EU 내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감 등으로 논의가 시작
    - 2016년 6월 23일 투표 결과 51.9% 찬성, 48.1% 반대로 브렉시트가 결정
  -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결정은 5~10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EU 이사회와의 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에는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그대로 적용
    - ※ 영국의 최종적인 EU 탈퇴 결정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 이사회와의 협상, 유럽의회 승인, 각료이사회의 가중다수결 투표로 결정(16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 유예기간 동안 영국과 EU 이사회 간 협상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할 경우, 기존 협정에 대한 효력은 모두 상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브렉시트 이후 국내외 금융지수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작음**
  - 브렉시트 이후 對미 환율은 3.4% 상승했고, 국제유가는 5.9%, 국제곡물가격지수(옥수수, 밀, 대두)는 1% 내외로 하락
    - ※ 2008년 금융위기: 對미 환율 +35.5%, 국제유가 -43.1%, 옥수수 -23.6%, 밀 -37.1%, 대두 -18.5%
  - 그러나 9월 이후 영국총리 경선 및 EU 이사회와 2년간의 탈퇴 협상경과에 따라 국제금융지수의 변동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 외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 시도와 같은 도미노 Exit는 EU와 세계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농축산식품의 對영국 교역 비중을 감안할 때, 교역여건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변동 및 수입 원자재가격 변동 등 간접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2015년 영국산 수입액은 2.8억 달러(전체 수입 비중 0.9%)로 위스키의 경우 수입점유율이 96.6%에 달함
  - 2015년 對영국 수출액은 3,045만 달러(전체 수출 비중 0.5%)로 주로 가공식품(2,441만 달러)을 수출
  
- **브렉시트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유예기간 동안 브렉시트의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유예기간 이후 세계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18년 이전)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입이 모두 줄어 교역액은 1.21% 감소하고, 농업생산액도 0.07% 소폭 감소 전망
    - (2018년 이후)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어 교역액은 1.97~3.74%, 농업생산액은 0.32~0.34% 감소할 전망



# 브렉시트(Brexit)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달리 정치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함

## 1. 브렉시트의 對세계경제 전망

### 1.1. 브렉시트의 배경

□ 영국(British)의 유럽연합 탈퇴(Exit)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의 이민자 급증에 따른 부담, 영국의 EU 내 경제규모 대비 낮은 영향력, EU 분담금의 부담\*, EU 내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감 등으로 논의가 시작

- 2013년 캐머런 총리가 2017년 이전까지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함
  - 2016년 6월 23일 투표 결과 51.9% 찬성, 48.1% 반대로 브렉시트 결정
  - 영국은 EU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이사회와 2년간 탈퇴 협상을 진행

#### 영국의 EU 분담금

- \* 2015년 영국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으나, 1975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서 EU로부터 받은 수혜금보다 더 큰 규모의 기여금을 부담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순기여금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
- \* 영국의 총 분담금은 178억 파운드(약 30조 원, 분담률 12.6%, 2015년)에 이르나 연구개발기금, 결속기금, 농업보조금 및 구조기금 등 EU로부터 받는 수혜금은 85억 파운드(약 15조 원)에 불과함
- \* EU 예산 중 40%가 농업보조금으로 지출되나 영국의 농업부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고소득 지역이 많아 수혜가 적을 수밖에 없음

□ 브렉시트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EU 금융위기보다는 정치적 사건

-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형 금융사의 파산으로 직접적인 금융 시스템 훼손이나 자산가치의 급변동을 유발한 점에서 브렉시트와 위기의 본질이 다름
  - 브렉시트는 경제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적인 사건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 2008년 금융위기의 불확실성 확산 및 증폭의 원인은 금융시스템이었으나, 브렉시트는 경제 시스템의 자체의 문제가 아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예상치 못한 악재였으나, 브렉시트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미 알려졌던 악재



## 1.2. 영국의 최근 경제 동향

- EU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세 번째로 큰 영국의 2015년 GDP 성장률은 2.3%로 EU(1.6%), 독일(1.7%), 프랑스(1.2%) 등을 상회하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실현
  - EU 주요국의 GDP 성장률(%)
    - ※ 영국: 1.2('12년) → 2.2('13년) → 2.9('14년) → 2.3('15년)
    - ※ 독일: 0.4('12년) → 0.3('13년) → 1.6('14년) → 1.7('15년)
    - ※ 프랑스: 0.2('12년) → 0.7('13년) → 0.2('14년) → 1.2('15년)
    - ※ EU: -0.9('12년) → 0.3('13년) → 0.9('14년) → 1.6('15년)
  - 이는 경상수지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및 소비관련 지표들의 상대적인 호조에 기인<표 1>

표 1. EU 주요국의 경제지표 비교

구분	영국		독일		프랑스		EU	
	'14	'15	'14	'15	'14	'15	'14	'15
경상지수(억 유로)	-1,417	-1,325	2,129	2572	-230	-42	254	334
실업률(%)	6.3	5.4	5.0	4.6	10.3	10.4	11.6	10.9
조세생산증감(%)	2.6	-0.1	1.9	0.4	-0.1	1.7	1.8	1.7
소매판매증감(%)	4.3	4.2	1.4	3.0	2.3	3.8	1.5	2.8

자료: EUROSTAT

- 영국의 EU 역내 상품무역 비중은 49.4%이고, 북미 등 비유럽권 지역과 무역 비중이 높음(2015년 기준)
  - ※ 영국의 교역 비중: 독일(12.8%), 미국(11.4%), 중국(8.2%), 네덜란드(6.8%), 프랑스(5.8%)
  - ※ EU 역내 교역 비중: 영국(49.4%), 독일(60.3%), 프랑스(63.6%)
  - ※ 한국과의 교역 비중: 1.2%, 한국의 對영국 수출 비중: 1.4%(16위)
  - ※ 주요 수출품목 비중: 자동차(8.4%), 금(8.4%), 의약품(5.3%), 터보제트(4.2%)
  - ※ 주요 수입품목 비중: 자동차(7.6%), 의약품(3.2%), 금(3.0%), 무선통신기기(2.9%)

## 1.3.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외 영향

### □ 국내외 금융지수 변동

- 브렉시트 직후 환율, 주가 등 금융지수 변동
  -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9.91% 폭락하였으며,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 역시 2.57% 하락
  -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2.87% 증가
  - 국제유가 4.58%(Brent) 하락, 금값 4.29% 상승
- (국내시장) 코스피 1.30%, 코스닥 1.16% 하락, 원/달러 환율은 2.33% 상승, 원/엔화 환율은 4.93% 상승(6/28 종가 기준)

## □ 영국 경제 위축 전망

- 영국 재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2021년 영국의 GDP 규모는 EU 잔류 대비 3.8~7.5% 감소하며, 1인당 GDP 또한 1,100~2,200파운드 감소 전망<표 2>
  - 세계 주요 경제기관들도 브렉시트 이후 10~15년에 걸쳐 영국경제 후퇴 전망

표 2. 주요 기관별 영국의 브렉시트 영향 전망

기관	실질 GDP 감소폭* (%)	기간	비고
OECD	-3.3	2020년	가구당 소득 2,200파운드 감소
	-2.7 ~ -7.7	2030년	EU와의 교역관계 협상이 노르웨이 방식(EU 내 상품과 서비스 이동 자유화)으로 이루어지면 GDP 2.7% 감소 EU와의 교역관계 협상이 영국에 불리하게 이루어지면 GDP 7.7% 감소
IMF	-1.5 ~ -9.5	-	-
JP Morgan	-1.0	브렉시트 이후 1년간	EU와의 교역관계 재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GDP 감소
Societe Generale	-4.0 ~ -8.0	브렉시트 이후 5년간	EU와의 교역관계 재협상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Morgan Stanley	-1.5 ~ -2.5	브렉시트 이후 2년간	-

주: \* 영국이 EU에 잔류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기간까지 GDP 규모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의미  
자료: LG 경제연구소(2016)

## □ 영국의 무관세 수입 비중 20.6%p 감소 전망

- 완전 무관세였던 역내무역과 FTA 체결국과의 무관세 교역이 관세화되면서 브렉시트 이전 90.1%였던 무관세 비중은 69.5%로 감소할 전망<표 3>
  - 기존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중국 등과는 브렉시트 이후 관세율 변동이 없을 것이나, 역내무역과 FTA 체결국과의 무관세 교역 감소

표 3.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무관세 비율 변화

단위: 억 달러

구분	브렉시트 이전				브렉시트 이후			
	무관세 적용		관세 적용		무관세 적용		관세 적용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EU	1,873	3,238	0	0	1,319	2,250	554	988
FTA 체결국	528	666	0	0	371	463	156	203
비 FTA	1,083	1,298	475	570	1,083	1,298	475	570
소계	3,483	5,202	475	570	2,773	4,011	1,186	1,760
비중(%)	88	90.1	12	9.9	70	69.5	30	30.5

주: MFN 무관세율 적용 대상(금액기준)은 영국의 수입 69.5%, 수출은 70.4% 적용  
자료: Eurostat, 영국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이 영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 2015년도 영국의 EU 분담금은 177억 8천만 파운드로 전체 분담금에서 12.6%를 차지하고, 독일(21.4%), 프랑스(15.7%) 다음으로 큰 규모
  - 공적부문 환급금(public sector receipts) 44억 5천만 파운드와 할인금액(rebate) 48억 6천만 파운드를 제외하면 영국의 실질 분담금은 84억 7천만 파운드
- 공적부문 환급금 대부분은 유럽농업보장기금(EAGF)과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EAFRD)을 통해 농업직불금과 농촌개발지원금으로 지급
  - 2015년 EU의 對영국 CAP 농업직불금과 농촌개발지원금 예산은 각각 29억 6천만 파운드(66.5%)와 3억 1천만 파운드(7.0%)로 전체 공적부문 환급금 중 73.5%
    - ※ EU의 전체 직불금과 농촌개발지원금에서 영국의 비중은 각각 8.5%와 2.7%
- 브렉시트로 EU CAP의 핵심인 직접지불제가 폐지됨으로써 영국 농가소득이 최대 50% 하락 전망(Agra Europe)
  - 농가 유형별 소득 감소율은 낙농가 16.7%, 혼합농가 44.6%, 저지대 방목농가 48.4%
- 공적부문 환급금이 농업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CAP 직접지불제 폐지가 지역별 농산업과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
  - 전체 산업에서 농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브렉시트 반대여론이 컸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
- CAP을 통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누렸던 영국 농업부문은 브렉시트로 인한 각종 보조금 중단 등의 충격을 완화시킬 제도적 보완·정비 시급

## □ 세계경제 및 유로존에 미칠 영향

- EU 역내 교역량 감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비 및 투자 감소 등은 최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 경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유로존 경제성장률(% , 전기비): 0.5('15.1분기) → 0.4(2분기) → 0.3(3분기) → 0.3(4분기) → 0.6('16.1분기)
- 영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교역 둔화 폭이 클 것으로 예상
  - 주요국의 총수출 대비 對영국 수출 비중(% , 2015년): 아일랜드(13.8), 네덜란드(9.0), 벨기에(8.7)
-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OECD와 BRICs의 실질 GDP(2018년)는 각각 0.6%p 후퇴 전망



- 유럽 주요국의 주가 하락, 파운드화 및 유로화 약세 등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 파운드화 및 유로화 가치는 영국 국민투표 결정(2.18.) 이후 각각 3.7%, 1.8% 하락
  - ※ (달러/파운드) 1.4401(2/19) → 1.3872(2/26), (달러/유로) 1.1130(2/19) → 1.0930(2/26)
  - ※ 달러/파운드 1개월 만기 옵션 내재변동성: 10.4(5/20)→19.3(5/31)
  
- 브렉시트는 정치적 사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였을 때, 최근 금융지수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음<표 4>
  -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거시지표 변동)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자 원/달러 환율은 전년대비 35.5% 상승, 국제유가는 43.1% 하락, 국제곡물 선물가격 하락(옥수수 23.6%, 밀 37.1%, 대두 18.5%)
  - (브렉시트 전후 거시지표 변동) 브렉시트 발표 전인 6월 23일(목) 대비 28일 원/달러 환율은 2.33% 상승, 국제유가는 5.89% 하락, 국제곡물가격지수(옥수수, 밀, 대두)<sup>1)</sup> 1% 내외로 하락
  
- 그러나 9월 이후 영국총리 경선 및 EU 이사회와 2년간의 탈퇴 협상경과에 따라 국제금융지수의 변동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 외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 시도와 같은 도미노 Exit는 EU와 세계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

표 4. 글로벌 금융위기와 브렉시트 거시지표 변동 비교

단위: 달러/배럴, 원/달러, 달러/톤

구분	글로벌 금융위기			브렉시트		
	'07.9.~'08.8.	'08.9.~'09.8.	'08/'07 (%)	6.23.	6.28.	28/23 (%)
국제유가	106	60	-43.10	50	47	-5.89
환율	973	1,319	35.52	1,146	1,173	2.33
밀	326	205	-37.13	167	163	-2.15
옥수수	202	154	-23.64	152	151	-1.10
대두	461	376	-18.49	413	416	0.60

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의 국제유가, 환율, 밀, 옥수수, 콩은 각 연도 9월부터 익년 8월까지 자료를 사용  
 자료: EIA, 한국은행, Thomson Reuters

1) 국제곡물가격지수는 국제곡물이사회(International Grains Council: IGC)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

## □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 (국제금융시장) 브렉시트는 전 세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전망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금융시장은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크고, 파운드화 및 유로화 약세로 이어져 원화의 동반 약세, 외국자본 유출 등 우려
- (교역부문) 중기적으로 영국과의 교역에서 관세체계와 세관행정의 부재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는 한영, 한EU 간 무역관계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 존재
  - 그러나 우리나라와 영국 간 교역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2015년 기준 對영국 수출규모는 73억 9천만 달러로 총 수출액의 1.4%에 그침
- (對유럽 투자)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유럽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기존 對영국 투자가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등 다른 EU 회원국으로 이전될 가능성
  - 영국의 對한국 수출투자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직접적인 투자 위축 우려 적음
  - 2015년 기준 영국의 對한국 투자규모는 2억 6천만 달러로 총 외국인투자액의 1.2%에 그침
- (종합)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세계 금융불안, 경기침체, 소비 위축에 따른 간접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
  - (수입 원자재) 국제유가 및 수입 원자재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달러강세로 국제곡물시장의 유동성자금(투기)이 이탈하면서 국제곡물가격 하락 전망
    - \*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등 원자재 가격하락이 전망됨에도, 원화 평가절하로 원자재 수입부담의 불확실성 증가 전망
  - (수출입) 원화 평가절하로 단기적으로는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나, 브렉시트의 여파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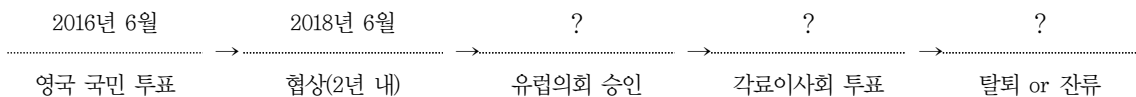
# 교역여건 변화로 인한 직접 효과보다, 세계 경제 변동에 따른 간접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

## 2. 브렉시트의 우리나라 농업부문 파급영향

### 2.1. 대외 교역여건에 미칠 영향

□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결정은 5~10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EU 이사회와의 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에는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그대로 적용

- 영국의 최종적인 EU 탈퇴 결정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EU 이사회와의 협상, 유럽의회 승인, 각료이사회 의 가중다수결 투표로 결정
  - 가중다수결 투표는 역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고, 전체 28개국 중 16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방식
  - ‘리스본 조약’ 제50조는 EU를 떠나려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2년간 회원국과 EU가 맺어온 관계 전반에 관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협상을 벌이도록 규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2년이면 자동 탈퇴 처리
- 유예기간 동안 영국과 EU 이사회 간 협상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하면, 기존 협정에 대한 효력은 모두 상실



- 유예기간 동안 영국은 EU 및 제3국과 각종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하였던 모든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자격을 상실
  - 영국은 한국을 포함한 53개 경제권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
- 기존 특혜관세가 사라지고 WTO 양허세율(bound rate) 범위 내에서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applied rate)을 부과하게 됨

□ 우리나라 농축산식품의 對영국 교역 비중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가 한 영국 농축산식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참고 2>

- '15년 영국산 수입액은 2.8억 달러(전체 수입액 중 0.9%)로 주로 가공식품(2.4억 달러)을 수입하고 있으며, 위스키는 수입점유율이 96.6%에 달함
- '15년 對영국 수출액은 3,045만 달러(전체 수출액 중 0.5%)이고 주로 가공식품(2,441만 달러)을 수출
- 영국의 EU 탈퇴 시, 우리나라 對영국 수출 농축산식품은 실행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가격경쟁력 약화 전망

□ 교역여건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변동이 농축산식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농축산식품 최대 수출대상국(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액 중 22.2%)이며, 브렉시트에 따른 엔화절상 때문에 우리나라 농축산식품의 對일본 수출이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원화 가치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일본 및 미국 등으로의 농축산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다만, 브렉시트의 여파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개도국의 소비가 위축되면 중장기적으로 농축산식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2.2. 농업생산액과 농축산식품 수출입량에 미칠 영향('16년~'20년)<sup>2)</sup>

□ 브렉시트가 국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협상 유예기간 동안에는 제한적이나, 유예기간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전망

- (단기전망) 유예기간 동안 브렉시트의 국내 농업부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농업생산액)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및 국내가격 하락으로 농업생산액은 0.07% 감소할 전망
  - (수출입)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액은 3.06%, 수입액은 0.77% 감소하여 교역액은 1.21% 감소하나,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0.07% 개선될 전망

2) 농업거시지표전망 및 영향분석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변동 분석 결과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 모형분석 결과임

- (중장기전망)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농업생산액)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폭 확대로 농업생산액은 0.32~0.34% 감소할 전망
  - (수출입) 세계경제 불황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확산됨에 따라 교역액은 1.97~3.74% 감소하지만,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0.32~0.37% 개선될 전망
  - \* 수출액은 4.70~9.33%, 수입액은 1.34~2.45% 감소할 전망

**분석 시나리오<sup>3)</sup>**

- \* 2016년 5월 15일 기준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사용한 경우(베이스라인)와 브렉시트 선언으로 인한 거시경제지표의 변동률을 적용한 경우(시나리오)의 농업총량부문 전망치 산출하여 비교
- \* (경제성장률) 세계 기관에서 발표한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추정치를 준용하여 브렉시트 협상 유예기간 동안 0.2%p 하락, 유예기간 이후 0.3~0.6%p 하락을 시나리오로 설정
  - 모건스탠리는 브렉시트 영향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0.2%p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OECD는 2018년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이 0.3~0.6%p 하락할 것으로 전망
- \* (환율) 베이스라인 대비 환율은 브렉시트 협상 유예기간 동안 9.9원/달러 상승, 유예기간 이후 14.8~29.5원/달러 상승을 시나리오로 설정
- \* (유가) 국제유가는 협상 유예기간 동안 1.8%, 유예기간 이후 2.7~5.5% 하락 가정
- \* (국제곡물) 국제곡물가격은 협상 유예기간 동안 1.2%, 유예기간 이후 1.8~3.6% 하락 가정

표 5. 농업 거시경제지표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구분	시나리오	'16~'17	'18~'20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경제성장률(%p)	-0.2	-0.3	-0.45	-0.6
	환율(원/달러)	9.9	14.8	22.2	29.5
	국제유가(%)	-1.8	-2.7	-4.1	-5.5
	국제곡물가격(%)	-1.2	-1.8	-2.7	-3.6
농업생산액		-0.065	-0.321	-0.330	-0.339
수출액		-3.059	-4.703	-7.021	-9.327
수입액		-0.773	-1.339	-1.897	-2.449
교역액		-1.208	-1.972	-2.861	-3.743
무역수지		0.070	0.324	0.351	0.374

주: 거시경제지표 시나리오별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율

3) 브렉시트는 단기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체계적 위험 요인으로, 향후 정치 이슈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경우,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함. 따라서 농업부문 파급 영향 분석은 현재까지 잠정적인 영향 분석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향후 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3. 시사점 및 대응 방향

#### 3.1. 시사점

□ 브렉시트는 세계 경기, 국제환율, 국제유가, 국제곡물 및 원자재가격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향후 세계경제의 위협과 불확실성이 증폭.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우리나라의 對영국, 對EU 농축산식품 교역량 비중이 낮아,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농업 부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영국의 최종적인 EU 탈퇴 결정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5~10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EU 이사회와의 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에는 한·EU FTA 협정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
- (유예기간) 유예기간 동안 브렉시트의 국내 농업부문 영향은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교역액 및 생산액이 소폭 감소하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브렉시트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하였을 때, 최근 금융지수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음
  - 그러나 9월 이후 영국총리 경선 및 EU 이사회와 2년간의 탈퇴 협상경과에 따라 국제 금융지수의 불확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존재함
- (유예기간 이후)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고, 세계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원자재 수입부담 증가, 소비위축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영국 외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 시도와 같은 도미노 Exit는 EU와 세계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 존재

□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대외적 환경변화 가능성

- (국제곡물가격 하락) 브렉시트 이후 28일 국제곡물가격지수(밀, 옥수수, 대두)는 1% 내외로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곡물 수입 부담이 가중될 전망
  - 국제곡물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 증가 가능성

- (미·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지속 및 환율변동) 유럽과 신흥국에 투자된 자본이 미국과 일본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원/달러 환율, 원/엔화 환율 상승. 이는 미국과 일본으로의 농축산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동남아시아, 할랄시장으로의 수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미·일 환율 상승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우리나라 수출은 전반적으로 감소 전망
- (글로벌 경제 불안정 심화에 따른 소비위축) 영국과 EU의 경제가 침체되고, 그 여파가 아시아에까지 미칠 경우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고급농식품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
- (신고립주의 확산) 탈 EU가 가속화되고 신고립주의가 확산될 가능성 존재. 이 경우 교역에 있어서는 비관세장벽이 강화·급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

### 3.2. 정부 대응방안

- (한·영국 FTA 준비) 기존 한·EU FTA 이행을 점검하고, 가격 경쟁력 강화 및 영국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한·영 FTA 및 EU에서 탈퇴하는 국가와의 개별 농업협상 준비 필요
  - 對영국 수출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한·영국 FTA 대비 필요
  - 또한,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영국 외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 시도와 같은 도미노 Exit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對미국·일본수출시장 확대 전략 필요) 달러가치 상승 및 일본의 엔고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축산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미국·일본시장 확대를 위한 對미국·일본 농축산식품 수출확대 전략 필요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 등 원자재가격 및 환율 변동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對세계 수출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의 불균형과 갈등으로 야기된 브렉시트의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간, 산업 간, 특히 농업 내부의 소득불균형 및 곡물과 축산농가 등 작목 간 불균형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참고 1 영국의 EU 내 농축산물 교역부문 위상

- 영국의 對EU 농산물 수입 비중은 2015년 12.3%, 수출 비중은 4.8%로 수출 비중 대비 수입 비중이 7.5%p 높음
  - 영국의 농산물 수입 비중은 독일,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높으며 수출 비중은 8번째임

부표 1. EU 주요 국가별 역대 농산물 수입 비중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벨기에	7.0	7.1	7.1	6.9	6.8	6.9	7.1	7.1	7.0	6.7
독일	18.2	18.0	17.7	17.8	17.7	17.5	17.5	17.8	17.8	17.9
스페인	6.5	6.3	6.1	6.5	6.3	6.1	5.7	5.4	5.5	5.6
프랑스	11.9	11.8	11.8	12.2	12.0	12.0	11.7	11.8	11.8	11.7
이탈리아	10.4	9.9	9.3	9.4	9.6	9.5	9.0	8.8	8.7	8.3
네덜란드	8.3	8.3	8.5	8.4	8.4	8.7	8.8	8.8	8.5	8.7
영국	12.3	11.9	11.0	10.9	11.2	11.0	11.6	11.3	11.6	12.3

자료: Eurostat

부표 2. EU 주요 국가별 역대 농산물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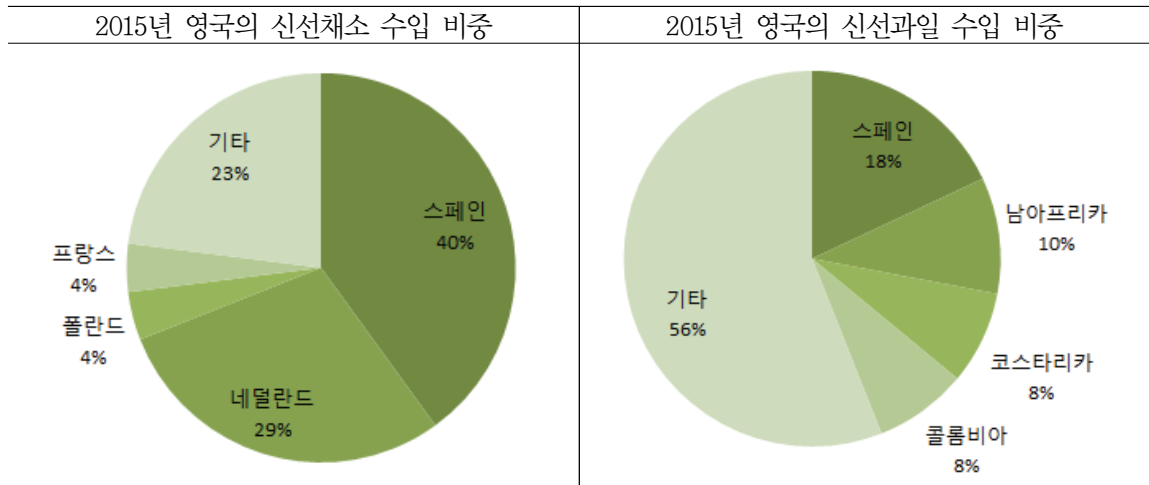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벨기에	9.6	9.4	9.4	9.6	9.1	9.1	9.2	8.9	8.9	9.0
독일	15.6	16.1	16.2	16.4	16.0	16.0	16.0	16.2	16.3	16.0
스페인	8.6	8.2	8.3	8.6	8.7	8.5	8.7	8.8	8.8	9.3
프랑스	14.0	13.8	13.4	12.7	12.2	12.5	12.2	12.1	11.5	10.9
이탈리아	7.1	7.1	7.1	7.1	7.2	7.0	6.9	6.8	6.9	7.0
네덜란드	17.2	17.1	17.2	17.2	17.4	17.0	16.6	16.9	16.7	16.2
영국	5.2	5.1	4.8	4.8	5.0	4.9	4.7	4.5	4.7	4.8

자료: Eurostat



□ 영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상대국은 네덜란드(12%), 아일랜드(10%), 프랑스(10%), 독일(9.2%), 스페인(6.8%) 순임

○ 영국의 농산물 수입 중 신선과일과 채소류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기준 총 8조 5천억 원(52억 파운드) 규모임



자료: Eurostats

□ 영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상대국은 아일랜드(17%), 프랑스(11%), 미국(10%), 네덜란드(7.1%)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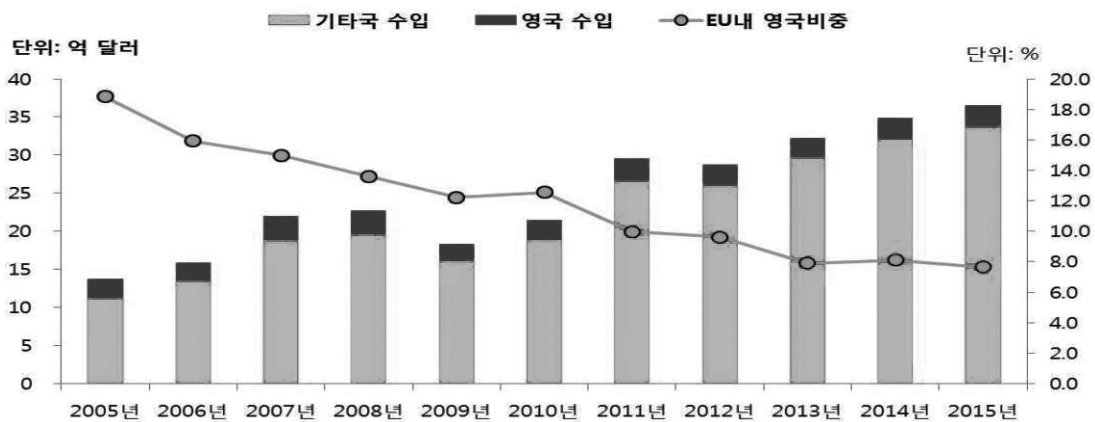
○ 영국의 농산물 수출 중 위스키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기준 총 6조 4천억 원(39억 파운드) 규모임

## 참고 2 한·영국 간 농축산물 교역 현황

□ 2015년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6.5억 달러이며, 그중 영국산 수입액은 2.8억 달러

- EU산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은 2009년 이후 연평균 12.1% 증가한 반면, 영국산은 3.7% 증가에 그침
  - 영국산 수입액이 EU산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8.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7.7%까지 하락
  - 영국산 수입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2%에서 2010년 1.1%, 2015년 0.9%로 하락

부도 1. EU 및 영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우리나라는 영국으로부터 주로 가공식품(2.4억 달러)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공식품 수입액의 2.9%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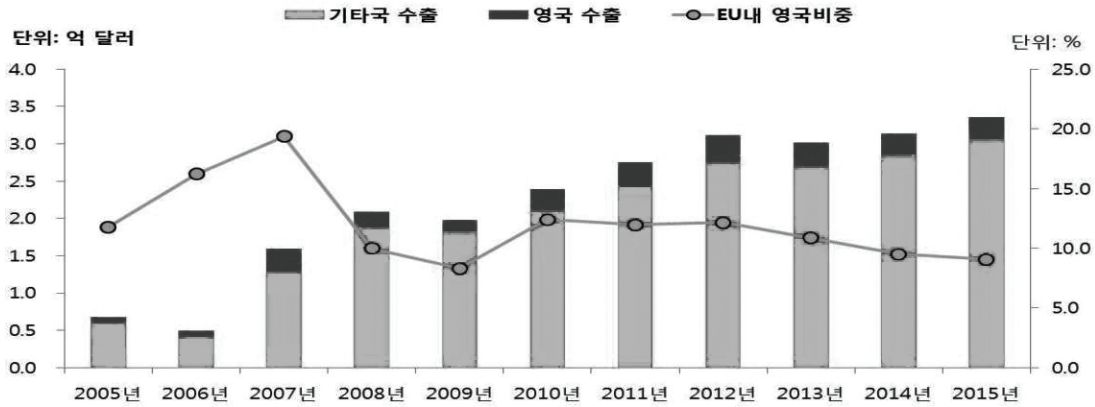
- 품목별로, 위스키(1.8억 달러), 혼합조제식료품(1,191만 달러), 커피(670만 달러)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위스키의 경우 수입점유율이 96.6%에 달함
  - 이외에도 밀(1,191만 달러, 0.4%)이 2015년도에 신규로 수입되었으며, 보리는 787만 달러(4.1%)가 수입
  - 축산물 중에는 돼지고기(222만 달러, 0.2%), 버터(159만 달러, 4.9%), 치즈(85만 달러, 0.3%) 등이 수입

□ 2015년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3.4억 달러이며, 그중 對영국 수출액은 3,045만 달러

- 對EU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은 2007년 이후 연평균 9.8% 증가한 반면, 영국산은 오히려 2007년보다 1.3% 감소
- 對영국 수출액이 對EU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9.4%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9.1%까지 하락

- 對영국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4%에서 2007년 0.9%로 상승, 2015년 0.5%로 하락

부도 2. 對EU 및 對영국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우리나라는 영국으로 주로 가공식품(2,441만 달러)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가공식품 수출액의 0.6% 수준

- 품목별로, 라면(644만 달러, 2.5%), 혼합조제식료품(446만 달러, 0.7%), 기타 음료(350만 달러, 1.9%), 김치(192만 달러, 2.1%), 고추장(61만 달러, 1.8%) 등이 있음
- 그 외에 감귤(54만 달러, 22.2%), 채소종자(28만 달러, 0.8%), 기타 과실(15만 달러, 1.5%) 등을 수출

부표 3. 한·영국 간 전체 농축산물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	전체	11,888	13,327	20,335	24,518	19,392	23,773	30,377	29,625	30,512	32,092	30,433	0.9	-5.0
	EU	1,377	1,593	2,207	2,269	1,837	2,154	2,955	2,880	3,224	3,485	3,651	20.9	4.7
	영국	259	254	331	309	225	270	295	277	255	283	279	1.0	-1.2
	기타국	1,118	1,339	1,876	1,960	1,612	1,883	2,660	2,604	2,969	3,203	3,371	22.8	5.3
	전체 내 비중	2.2	1.9	1.6	1.3	1.2	1.1	1.0	0.9	0.8	0.9	0.9	-	-
	EU 내 비중	18.8	15.9	15.0	13.6	12.2	12.6	10.0	9.6	7.9	8.1	7.7	-	-
수출	전체	2,222	2,304	3,476	3,797	3,787	4,722	5,703	5,783	5,957	6,402	6,170	6.1	-3.6
	EU	68	50	159	208	198	239	275	312	302	314	336	13.3	6.9
	영국	7.99	8.09	30.87	20.82	16.46	29.69	32.92	37.90	32.87	29.88	30.45	-4.5	1.9
	기타국	60	42	129	188	181	210	242	274	269	284	305	16.6	7.5
	전체 내 비중	0.4	0.4	0.9	0.5	0.4	0.6	0.6	0.7	0.6	0.5	0.5	-	-
	EU 내 비중	11.8	16.2	19.4	10.0	8.3	12.4	12.0	12.1	10.9	9.5	9.1	-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부표 4. 영국산 농축산물 주요 품목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률	'13~'15년 평균점유율
위스키	218.81	199.70	178.48	192.03	181.73	-5.4	96.6
밀	0.00	0.00	0.00	0.00	11.91	-	0.4
혼합조제식료품	3.77	7.99	7.07	8.18	11.05	35.0	0.8
보리	4.28	3.95	4.20	6.88	7.87	14.4	4.1
커피	6.85	4.71	5.08	6.48	6.70	3.3	1.2
기타 양모, 조수모 등	5.76	5.27	5.03	5.62	5.32	-5.2	2.7
기타제조담배	0.11	2.94	3.80	4.23	4.23	-0.2	13.5
농산 유아용조제식료품	1.72	2.17	2.80	3.97	3.74	-5.8	11.0
기타주	0.00	0.10	0.15	1.04	2.89	178.6	34.7
돼지고기	2.23	2.49	1.70	2.56	2.22	-13.1	0.2
사료첨가제	0.80	1.95	3.16	2.96	2.18	-26.4	15.0
방향성물질	0.92	0.83	1.01	1.82	2.11	16.0	2.0
보조사료	1.77	1.44	1.37	1.78	1.98	10.9	5.0
초콜릿	1.79	1.58	1.20	1.95	1.88	-3.3	0.8
브랜드	0.63	1.42	1.85	1.78	1.66	-6.5	42.9
비스킷	1.39	1.34	1.23	2.13	1.64	-23.1	1.6
버터	0.68	0.83	0.96	1.31	1.59	21.4	4.9
곡류조제품	3.40	4.19	2.77	4.71	1.37	-70.8	9.9
기타사료용조제품	0.09	0.27	0.57	1.11	1.14	2.9	1.5
아이스크림	0.11	0.20	0.31	0.19	1.08	473.5	2.4
닭	1.89	1.89	1.50	1.57	1.06	-32.9	16.8
기타비휘발성유지	0.79	0.88	1.28	1.21	1.04	-14.1	2.4
개 사료	0.28	0.42	0.56	0.48	0.99	105.0	0.5
퀵런	0.01	0.00	0.00	0.00	0.89	-	0.9
베이커리반죽	0.05	0.22	1.38	1.28	0.85	-33.3	3.3
치즈	1.03	1.22	1.40	1.57	0.85	-46.1	0.3
커피조제품	0.43	0.47	0.64	0.72	0.83	14.6	1.0
기타과실	0.19	0.28	0.43	0.68	0.80	17.3	0.2
맥주	0.10	0.16	0.32	0.48	0.77	60.8	0.4
기타조제식료품	0.52	0.75	0.92	1.01	0.72	-28.2	6.6
향미용조제품	0.24	0.39	0.61	0.81	0.72	-10.8	2.3
소화효모	1.51	1.40	1.21	1.18	0.66	-44.1	4.1
물	0.35	0.25	0.44	0.44	0.64	44.8	0.8
보드카	0.15	0.27	0.57	0.62	0.60	-4.0	6.6
기타식물성유지	0.48	0.48	0.44	0.55	0.57	2.5	2.0
맥아엑스	0.36	0.43	0.38	0.63	0.55	-12.8	39.6
펩톤	0.41	0.66	0.56	0.45	0.52	15.8	0.8
캔디	0.49	0.55	0.56	0.39	0.48	24.8	0.4
홍차	0.50	0.23	0.22	0.25	0.44	77.3	3.1
기타식물성점질물	0.12	0.09	0.06	0.29	0.38	29.8	0.7
아라비아검	0.15	0.25	0.39	0.86	0.36	-58.1	14.1
빵	0.29	0.51	0.18	0.07	0.34	363.2	0.4
포도주	0.05	0.04	0.69	0.14	0.33	136.2	0.2
가죽	0.55	0.17	0.16	0.17	0.31	79.9	0.2

주: 영국산 수입 품목 중 수입액 상위 30만 달러 이상인 품목만 제시함(일부 임산물 제외)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부표 5. 對영국 농축산물 주요 품목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 대비 증감률	'13~'15년 평균점유율
라면	3,63	4,28	5,35	4,46	6,44	44.6	2,5
혼합조제식료품	3,37	5,76	7,31	5,06	4,46	-11.9	0,7
기타음료	1,36	1,78	3,17	3,32	3,50	5.6	1,9
김치	1,11	1,31	1,42	1,78	1,92	7.7	2,1
인스턴트면	0,23	0,83	1,34	1,37	1,59	15.9	4,2
기타소스제품	0,24	0,57	0,71	1,10	1,41	28.1	1,6
젤라틴	1,02	1,06	0,06	1,23	1,35	10.0	1,4
기타베이커리제품	0,41	0,46	0,60	0,73	0,99	36.5	0,8
기타과스타	1,10	1,13	1,20	1,27	0,97	-23.2	3,1
고추장	0,35	0,37	0,41	0,48	0,61	27.3	1,8
감귤	0,46	2,23	1,67	0,76	0,54	-27.9	22,2
국수	1,10	0,51	0,61	0,72	0,42	-40.9	2,1
비스킷	0,62	0,37	0,70	0,46	0,37	-18.7	0,4
가죽	0,24	0,26	0,34	0,27	0,36	33.2	0,5
기타조제식료품	0,23	0,10	0,20	0,17	0,32	91.0	0,8
간장	0,17	0,23	0,25	0,26	0,29	11.2	1,9
면	1,55	0,37	0,19	0,91	0,29	-68.4	2,1
채소종자	0,36	0,32	0,39	0,35	0,28	-21.4	0,8
곡류조제품	0,38	0,39	0,53	0,40	0,27	-34.4	0,9
물	0,08	0,17	0,14	0,17	0,21	24.7	0,2
베이커리반죽	0,15	0,18	0,14	0,18	0,21	11.4	0,4
단일과실조제품	0,08	0,18	0,99	0,55	0,18	-67.3	0,8
기타 양모, 조수모 등	0,12	0,50	0,12	0,17	0,17	0.7	0,4
맥주	0,10	0,09	0,12	0,12	0,16	34.9	0,2
기타과실	0,06	0,11	0,72	0,27	0,15	-42.1	1,5
소주	0,11	0,14	0,14	0,11	0,15	35.6	0,1
칼판류	0,19	0,21	0,11	0,13	0,14	6.2	0,7
기타채소	0,08	0,07	0,11	0,12	0,12	3.6	0,8
기타비휘발성유지	0,00	0,01	0,04	0,02	0,10	398.1	1,6

주: 對영국 수출 품목 중 수출액 상위 10만 달러 이상인 품목만 제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6년

-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 제127호 한·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현)
-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 제121호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 제119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  
(최병욱,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  
(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욱, 노호영)
-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욱, 장철수, 최지현)
-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  
(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 제108호 2015 국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유정현)
-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정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  
(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립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용)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 KREI 농정포커스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7. 4.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조미형,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mailto:admin@han-d.co.kr)

---

ISBN: 978-89-6013-902-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